

추석가정예배순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추석가정예배순서

인도자 : 가족 중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시간을 정한 후, 복장을 단정히 하고 모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인도자, 기도자를 정합니다.

*각 가정은 예배문을 참조하여 가정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식 사 인 도 자

오늘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다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용한기도 인 도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57:19)

찬 송 304장 다 같 이

신 앙 고 백사 도 신 경..... 다 같 이

기 도 가족 중에서

성 경 봉 독 시 편 68 편 3-6 절 가족 중에서

3.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4.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설 교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인 도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족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 된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3-4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가족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깨닫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신 하나님 (5-6절)

고아와 과부 그리고 6절에 나오는 ‘고독한 자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를 통틀어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때로는 힘이 없고 연약해질 때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가족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라 (6절)

6절 마지막에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나옵니다.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부름 받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부르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보자면 그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은 주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됩니다.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 송 559장(또는 가족이 좋아하는 찬송) 다 함 께
기 도 가족 중에서
주 기 도 문 다 함 께

성묘 가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혹은 조상)의 무덤 앞에 모여
잠시 동안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 찬송 : 542장(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
- 명절에 부모님을 추모하며 드리는 기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명절에 흠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기르실 때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
명절에도 시름이 많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니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때때옷으로 차려입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못 다한 효도를
자식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형편에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희망의 터전을 일구다 가신 부모의 본을 따라
저희들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경 : 창세기 13 : 1 - 13
- 설교 : (생략할 수 있다.)
- 찬송 : 384장
- 주기도문